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상하이 해운보험시장 활성화 기대

□ 최근 중국은 상하이시를 세계해운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장려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해운보험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.

- 상하이시의 해운보험시장은 올해 3/4분기(7~9월)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중국 전체 해운보험의 약 17%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지만, 전년동기대비 2.5% 성장에 그쳐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최근 상하이시는 2020년까지 상하이시를 세계해운 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박용자임대보험 및 재보험 시행, 해운산업 투자기금 설립, 해운 가격지수 파생상품 개발, 해운보험 수입에 대한 영업세 면제 등 해운시장 및 보험 관련 활성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.

□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상하이시 해운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와 같은 관련 인프라 구축, 정부의 세금우대 정책, 재보험 사업 강화 등이 필수적임을 조언하고 있음.

- 상하이시 항구 물동량은 이미 글로벌 상위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보험 시장 규모가 물동량과 정비례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음.
- 따라서 상하이시가 진정한 국제해운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글로벌은행 및 보험회사 유치, 금융서비스 등의 각종 인프라 보완과 함께, 현재 양산 심수항(洋山深水港)에만 적용되고 있는 세금우대 정책도 상하이 지역의 모든 항구와 부두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.
- 아울러 전문가들은 선박보험 및 화물운송보험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해운보험 관련 서비스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재보험 분야 등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.

(화하시보, 12/11)